

# 담양군 딸기 '죽향' 미국 첫 수출

### 고당도·고경도 딸기 '값도 두배' 300kg 선적...계약 물량 2.1t '죽향' 미국 재배 뎀 로열티 기대

담양군이 자체 육성한 프리미엄 딸기 '죽향'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담양군에 따르면 죽향 딸기는 담양군에서 자체 육성한 고당도·고경도 품종으로 이번 미국 수출 계약물량은 모두 2.1t이다.

군은 지난 21일 금성농협 딸기 집하장에서 미국 수출용 딸기 상차식을 갖고 선도물량 300kg을 수출했다.

수출 계약금액은 일반 딸기의 2배 이상인 2kg 1박스 기준 4만원에서 4만5000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가격이다.

식감과 당도 등에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죽향은 지난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에 또다른 자체 개발 품종인 '메리퀸'과 함께 진출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담양군은 자체 개발한 딸기를 프리미엄 수출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과 고품



지난 21일 상차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미국 첫 수출길에 나선 딸기 품종 '죽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담양군 제공>

질 우량도, 기반구축,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체계 및 수출 전용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죽향과 메리퀸의 미국 품종보호출원을 위해 미국에서 재배시험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시장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한국산 딸기 중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 딸기재배에 성공할 경우 담양군은 상당한 로열티 수입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수출 전략을 통해 담양 딸기의 세계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강진군 제3회 아트페스티벌 개막

### 내달 6일까지 작가 36명 참여...서양화·도자기 등 구매 가능

강진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인 강진 아트페스티벌이 강진군아트홀에서 23일 개막했다. 3회째를 맞는 아트페스티벌은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행사는 작가와 소통하는 직거래시장 방식으로 열린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키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지역작가 36명의 참여해 110여 점의 서양화, 한국화, 도자기, 가죽공예, 사진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지역작가들이 작품 전시도 군민들에게 정서적 힐링을 선사하고, 작품 판매도 병행해 작가

들의 소득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아트페스티벌에는 32명의 작가의 작품 94점을 판매 했으며, 제2회 아트페스티벌에서는 강진 청자 생활자기 선물 세트를 선보여 호응 얻었다. 30% 할인행사도 진행됐다.

윤성일 강진군 문화예술과장은 "지역 작가들과 관람객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해 예술의 고장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흥군, 드론 활용 'AI 방역' 강화

### 내달 말까지

장흥군은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드론을 활용한 방역에 나선다.

장흥군은 지난 1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드론 활용해 방역활동을 추진해 주 2회 57개소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드론 방역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진 오는 28일 이후에도 지속해 느슨한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소독이 어려운 사각지역도 수월하게 소독할 수 있어 가금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임성수 장흥군 부군수는 "전국 일제 소독주차를 맞아 직접 드론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가금농가의 책임 방역과 함께 행정에서도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사전 방역과 AI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 관계자들이 드론을 활용해 AI 발생 오염원에 대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검찰 수사로 차질 빚던 나주 시정 본궤도

### 강인규 시장, 정치자금법 무혐의·채용비리 수사 일단락...선거 판도 영향 주목

장기간 검찰수사로 차질을 빚었던 나주시정인 강인규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처분과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수사가 일단락 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이 강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 시장은 아들, 측근과 함께 지난 2017년 선거 구민들에게 명절 선물로 홍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 시장의 개인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0개월을 끌어 온 나주시정 환경미화

원 채용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와 전직 언론인 B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기소돼 실형을 받은 C씨까지 모두 3명이 사법 처리되면서 채용비리 사건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나주시정이 차질을 빚는 등 불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에 나주시정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가담이 없었음에도 검찰이 나주시정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나주시정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10여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수십여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관을 나주시정에 파견해 직접 진술을 받는 등 과잉수사 논란을 불렀다.

나주시 정가에선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고 강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다가오는 나주시정 선거 판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 강백수 세무사 출판기념회

나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강백수(사진) 세무사가 자전 에세이집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내고 오는 26일 자신의 사무실(나주시 동점문길 7)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강 세무사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객관적인 눈으로 돌아봄과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더디지만 우직한 한결음, 한결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 출신으로 경기도의원을 지낸 강 세무사는



도 활동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세무법인 인경'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며 경제발전과 투명한 공적자산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후보 전남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특보단 부단장으로

# 화순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내달 2일부터 48대 선착순 모집

화순군이 다음달 2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차량 48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화순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영업용,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함평군, 유기견 안락사 방지 대책 추진

### 보호센터 리모델링·동물등록제 시행...유기견 입양 독려

함평군이 도심 곳곳에 출몰하는 유기견으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와 안락사 방지를 위해 지원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읍·면사무소, 기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유기견 입양 독려에 나섰으며 현수막과 군 홈페이지를 활용해 군민을 대상으로 유기견 입양을 홍보할 계획이다.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추가로 사업비 5600만원을 들여 유기견 돌봄 강화에 나선다.

또 유기견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사전 방지대책으로 동물등록제와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목표 사업량은 30마리로 함평군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실외견 개체 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목숨에 내장 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유기·실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